

소분과위원회 구성으로 보다 실 있는 분과위 정립



▲ 이흥재 위원장

- 1993. 호산농장 대표
- 2006. 육계자조금대의원회 의장
- 2006. 시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
- 2007. 대한양계협회 당진육계지부장
- 2007. 충남양계연구회장
- 2008. 본회 육계분과위원장 및 부회장

대한양계협회 제 18대 이준동 회장과 함께 3개 분과 위원장은 본회에서 양계 업계를 이끌어갈 부회장으로 앞으로 3년간의 임기로 역할을 수행한다.

육계분과에서는 당진육계지부장을 지낸 이흥재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육계산업의 추진력을 도모하기 위해 소분과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흥재 위원장을 만나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았다.

당진육계지부 활동으로 지역 회원들의 통로 역할

이흥재 위원장은 육계 충남 당진군에서 육계 10만수를 사육하고 있다.

1993년 육계사육을 시작하면서 흩어져 있는 양계인의 마음을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는 지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2001년 대한양계협회 당진육계지부를 설립하는데 총무로써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2007년도 당진육계지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생산자의 의견을 수렴해 백신, 안개분무시설지원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보 달성으로 회원 대변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다.

한편, 지난 2006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언론상에 무분별한 보도로 양계농가는 물론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홍재 위원장은 발을 벗고 뛰어난 결과 AI민·관협의회에 질병관리센터 전병을 센터장과 공동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언론상에 무분별한 보도를 감소하는 역할을 도맡기도 했다.

소위원회 구성으로 분과위원회 뒷받침

본회에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의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다 실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소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이 위원장이 제시하는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위원회로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논의가 검토된 후, 결정권은 분과위원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역에서 대표성을 띤 위원이 모이는 자리에서 합의점 도출과 함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몇 해째 심각한 질병으로 나타나는 감보로 백신은 경기나 충남지역은 도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타지역의 경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백신지원 등 축산업 생산과정에서 미약한 부분은 전면 검토를 통해 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이는 소위원회에서 기본적인 사안을 검토,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다.

분야별 3개의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는 정책개발, 계열, 유통으로 나누어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위원 5~7명 내외로 이루어진다.

첫째, 정책개발소위원회의 경우 양계산업의 정책적인 현안에 대해 계획적으로 한 계단씩 밟아 갈 수 있도록 2~3년 장기 계획안을 마련할 것이고,

둘째, 계열소위원회는 국내 육계산업이 대부분이 계열농가인 점을 감안해 생산비 상승과 관련해 사육수수료 인하에 따른 생산자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조직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목적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셋째, 유통소위원회는 현재, 일반사육농가로 오랜 경험이 있는 위원(회원)을 추천해 계열사육농가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은 병아리가격, 육계가격에 대한 이중시세가 발생하지 않게끔 유통의 투명화를 계획한다.

이 3개 소위원회 구성으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 심도있게 논의과정을 거쳐 생산자의 입장을 대변해 보다 다양한 의견 도출로 본회에서 개최하는 분과위원회에서 보다 합의점을 모색코자하는 목적이 있다.

탄탄한 중앙회 기반

육계산업에서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계열농가 체제로써 생산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 통로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80% 이상이 계열농가로서 농가 전체의 입장과 계열사에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이는 앞으로 구성될 정책소위원회를 통해 계획성 있게 진행해야 될 과제라고 전한다.

한편, 생산자들의 단체인 양계협회의 회원 증대는 장기적인 과제로 전국 양계 생산농가의 많은 참여를 유도해 중앙회 장악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상부조직(본회)이 하부조직(도지회 및 지부)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대한양계협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국 회원들의 단합이 중요하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참여를 적극 유도해 앞으로 탄탄한 본회가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정리 | 장성영 기자)